



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『선박 연료유 황함유량』 단속

※ 국무총리 주재,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(‘20.11월), 수송발전산업생활 4개 부분 감축 추진

✓ 기간 : ‘20.12월~’21.3월 / 대상 : 국내·외 선박

✓ 내용 : 국내 항해선박 연료유 기준 강화 홍보(12월), 단속(‘21.1~3월)

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

구 분	유 종	경 유(w%)	중 유(w%)
국내 항해선박		0.05	0.5*
국제항해 사용 선박		0.5	0.5
배출규제해역		0.05(국내) / 0.1(국외)	0.1

* ‘21.1.1 이후 정기(중간)검사 신청일 또는 ‘21.12.31.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적용



Global “Buzzword” 『GHG』, 『탈탄소화』에 대해 알아보아요~ 두번째 !!

※ IMO GHG 감축전략 : ‘08년도 대비 ‘5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을 50% 감축!!

- (2018.4월) 제72차 MEPC 결정, “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와 전략을 채택”

▶ 저속운항, 운항 효율성 개선 뿐 아니라 저탄소, 무탄소 연료의 개발과 확보가 중요!!

- 글로벌 선사들은 EEDI(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)외에 무탄소 연료 개발에 기술 투자 활발!
- 글로벌선사-화주 ‘탄소제로’ 협력 본격화, “2050 넷 제로(Net-Zero)” 공감

▶ 저탄소, 무탄소 연료는??? LNG, 암모니아, 수소, 바이오연료, 메탄올, 연료전지 등

- (LNG) 단기적으로는 현재 규제대응에 적합하나,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 일뿐 ‘완전 무탄소 연료’는 아님!! ‘포스트 LNG’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망!!

※ LNG연료는 황산화물 90% 이상, 질소산화물 80% 이상, 이산화탄소 15% 이상 감축의 효과

- (수소,암모니아) 수소는 영하 235도에서 보관, 저장 및 운송과정의 에너지 손실이 큼.

암모니아는 저온 보관 불필요, 비교적 에너지 밀도가 높음(저장공간 작음 → 원양항해 가능)
유독성의 단점이 있으나, 전세계적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음

- (바이오연료) 저장과 운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탄소중립 연료로 평가되나 작물 및 해양조류 등이 주 성분으로 본격적 연료 생산 시 식량 안보문제와 충돌 가능

- (연료전지) 배터리와 대체연료(수소,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)와의 결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규제 대응가능, 과거 우주항공, 잠수함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, 해양 사용은 개발 진행 중